

사고와 응급처치

매일유업 www.mall.com

졸도/경련/질식

아기가 졸도했을 때 머리를 높게 하고 차게 합니다. 목욕 중 안색이 나빠지면 서 축 늘어지는 경우는 뇌빈혈이므로 머리를 낮춰야 합니다.

경련을 일으킨 아기는 조용히 누이고,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며, 머리를 차게 합니다. 가제 수건을 이와 이 사이에 물려 혀를 깨물지 않게 합니다.

아기가 졸도했을 때 빨리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경련이 잦으면 수막염이나 뇌염일 우려도 있으므로 의사에게 보입니다.

질식했을 때는 아기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세운 다음 등을 세게 쳐줍니다. 성장해 허리를 바칠 힘이 있는 아기라면 어른의 무릎에 몸을 구부리게 하고 머리를 밑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삼킨 것을 토해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손가락을 넣어 기도를 막은 물질을 꺼내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랜 시간 질식상태가 계속 되면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숨쉬는 상태를 살펴 봅니다. 아기가 숨쉬기를 멈추면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전기쇼크

심한 감전을 받았을 때는 재빨리 스위치를 끕니다. 이때 절대로 아기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감전으로 아기가 의식을 잃었다면 심장마사지를 한 다음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아기 스스로 호흡을 시작하면 따뜻하게 안정시킵니다.

가벼운 감전에는 재빨리 아기를 떼어놓고 감싸줍니다. 전기로 인한 화상은 가벼운 감전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 쉬우므로 의사에게 보입니다.

탈구와 염좌

탈구됐다고 생각되면 관절을 움직이지 않도록 골절 때와 같이 고정시킨 다음 의사에게 보입니다. 빠진 관절을 가정에서 맞추려고 하다가는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탈구가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한동안은 운동을 삼가며 조심해야 합니다. 염좌는 인대가 열상이나 타박상을 일으킨 것이므로 붓대로 묶은 다음 의사에게 보입니다. **PRFK**

